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보도자료**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http://www.mke.go.kr
2012년 5월 2일(수)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문의 :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정책과 이경수 서기관 (02-2110-5172) 지식경제 R&D 전략기획단 이동근 미래전략팀장 (02-6009-8721)		

평창동계올림픽, 과학기술 올림픽으로 준비

평창 동계올림픽조직위 · 지식경제 R&D 전략기획단 공동 협약 체결

평창동계올림픽이 대한민국 고유의 스토리를 담은, 첨단 과학기술과 산업이 어우러진 새로운 테마의 차별화한 올림픽으로 준비된다.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위원장 김진선, 이하 '조직위')와 지식경제 R&D전략기획단(단장 황창규, 이하 '전략기획단')은 2일 프레스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동 협약(MOU)을 체결했다.

공동협약의 핵심내용은 '평창 올림픽을 과학기술 5대 강국 진입의 모멘텀으로 활용'하고 '체험형 올림픽' '지속형 기술'로 구성한다는 내용이다.

평창 올림픽을 '과학기술 5대 강국 진입의 모멘텀'으로 활용하는 전략은 대한민국 고유의 스토리를 담은 국가 R&D 성과를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 구현하고 이를 세계에 홍보한다는 전략이다.

또 '체험형 올림픽'은 전시성·1회용 기술전시에서 탈피, 선수·임원·기자단·관광객 등 모든 참가자들이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게 한다는 것이며, '지속형 기술'은 국가 R&D 성과를

평창 올림픽의 성공적 실현에 적용하되, 올림픽 종료 후에도 단지 내에 지속 활용과 확대 적용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전략이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올림픽 개최 때까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 대한민국 고유의 스토리를 담은 다양한 첨단 산업을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 집약적으로 구현한다는 전략이다.

이 같은 구상은 밴쿠버가 '환경', 아테네는 '문화', 베이징은 '중국 국가브랜드' 등으로 이미지메이킹되면서 평창동계올림픽은 차별화한 새로운 테마로 대한민국의 상징성을 겸해 대회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다는 전략에 따른 것이다.

황창규 R&D 전략기획단장은 "우리나라 과학기술 및 산업의 우수성을 집중 홍보함으로써 '첨단 대한민국'의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특히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 선보일 기술은 지식경제 R&D 전략기획단이 현재 추진 중인 미래산업 선도기술 등 미래 첨단기술로서, 2018년 이전에 상용화 가능한 기술들로 협의를 거쳐 런던올림픽(2012.7.27~8.12)을 전후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參考>

조직위-전략기획단 MOU 체결식 개요

□ **일시 : '12.5.2(수) 10:00**

□ **장소 : 프레스센터 7층**

□ **서명자 : 조직위 김진선 위원장, 전략기획단 황창규 단장**

□ **MOU 주요 내용**

① 대한민국 고유의 스토리를 담은 국가 R&D의 성과를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 구현하고 이를 전 세계에 홍보함으로써 평창 올림픽을 **'과학기술 5대 강국 진입의 모멘텀'**으로 활용

② 전시성·1회용 기술 전시에서 탈피, 선수·임원·기자단·관광객 등 모든 참가자들이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체험형 올림픽'**을 추구

③ 평창 올림픽에 적용될 국가 R&D 성과는 이를 통한 올림픽의 성공적 실현을 1차 목표로 하되, 올림픽 종료 後에도 단지 內 지속 활용 및 확대 적용이 가능한 **'지속형 기술'**로 구성